

## ■ 금주 연구원 주요 일정

- 10월 17일(화) 16시: 사무국 주간회의
- 10월 20일(금) 17시: 운영위원회의

## ■ 연구원 소식

### 새 식구를 소개합니다.

10월에도 우리 연구원을 찾는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모두 세분입니다. 전호림 님, 채영병 님, 이근혜 님이 그 주인공입니다.

전호림 님은 변주승 이사의 추천으로 연구원의 식구가 되셨습니다. 수원시 파달구 인계동 유디수원치과를 운영하고 계시며 변주승 이사와 고등학교 동기이십니다. 수도권 회원 모임에서 자주 뵈는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채영병 님은 아침정원을 운영중인 유미경 회원의 추천으로 가입하셨습니다. 전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한 후 현재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올곧은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활동하고 계십니다. 연구원 근처를 지역구로 삼고 계시기에 자주 자주 뵈 수 있으리라 기대됩니다.

이근혜 님은 전주덕진지역자활센터에서 근무하며 지역 사회 기초 사회 안전망을 위해 분투하고 계십니다. 10월에도 다양한 삶의 현장에서 굳건하게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시민들이 속속 연구원으로 발걸음을 나눠주고 계십니다. 보다 다양하고 유의미한 사업으로 회원에게 다가서는 연구원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2023년 5차 문화강좌 안내 ★

“한국독립영화의 역사”를 주제로 이정욱 감독님을 모시고 2023년 5차 문화강좌를 진행합니다.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가대상 : 연구원 회원 및 동반자 (선착순 25명)
- 일 시 : 2023. 10. 28(토) 16:00~20:00
- 장 소 : 전주대학교 한지산업관 201호
- 행사문의 : 한국고전문화연구원 사무국(063-286-3005), 박애스더 간사(010-3408-0128)
- 세부일정

| 날짜               | 시간            | 내용            |
|------------------|---------------|---------------|
| 10월 28일<br>(토요일) | 15:30 ~ 16:00 | 접수 및 등록       |
|                  | 16:00 ~ 16:50 | 한국독립영화의 역사 1부 |
|                  | 16:50 ~ 17:00 | 휴식            |
|                  | 17:00 ~ 17:50 | 한국독립영화의 역사 2부 |
|                  | 17:50 ~ 20:00 | 저녁 식사 및 뒤풀이   |

참석을 희망하시는 회원께서는 연구원 유선전화(063-286-3005)나 박애스더 행정간사(010-3408-0128)에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 ■ 역사속의 오늘

### 경성 감옥 1호 사형 집행 - 1908. 10. 21.

지금은 독립공원으로 예전 교도소는 1908년부터 1912년까지 경성감옥으로 불렸다. 1912년 서대문감옥으로 이름이 바뀌었다가 서대문 형무소로 불린 것은 1923년부터였다. 해방 후 서울형무소로 불리다 5.16 쿠데타 뒤에는 서울교도소로 이름이 바뀌었고 1967년부터 서대문 구치소 불리다 6월 항쟁이 끝난 뒤 경기도 의왕시로 이전하며 그 수명을 다했고 현재 그 건물에 서대문독립공원의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이 설치되어 있다.

대한제국 말기에 지어져 일제 강점기 때의 독립 운동뿐만 아니라 해방 이후 정치적 격변기와 군사독재에 항거하는 민주화 운동에 이르기까지, 근·현대사의 여러 주요 사건과 연관된 장소가 되었다. 80년간 운영되며 일제강점기 치열한 항일투쟁을 벌였던 독립투사들과 군부독재에 저항하는 민주화 인사들의 피와 땀이 배어 있는 곳이다.

80년 간 숱한 이들이 갖가지 사연으로 목숨을 놓은 곳이기도 한데 그곳에서 처음 사형을 당한 이가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이다. 서울시 종로구 종로 6가 69번지(동대문)에서 신설동을 거쳐 동대문구 청량리동 749번지(청량리 로터리) 구간 폭 35m, 길이 3,300m의 6차선 도로를 부르는 이름이 왕산로(旺山路)다. 서울의 을지로나 충무로처럼 왕산로 역시 사람의 호를 따서 지은 도로명이다.

“우리 이천만 동포에게 허위와 같은 진충갈력(盡忠竭力) 용맹의 기상이 있었던들 오늘과 같은 국욕(國辱)을 받지 않았을 것이다. 본시 고관이란 제 몸만 알고 나라는 모르는 법이지만, 그는 관계(官界) 제일의 충신이라 할 것이다.”

그는 안중근 의사로부터 위와 같은 평가를 받을 만큼 끈고 바른 이였다. 경북 선산군 구미면(현재 구미시)에서 태어난 뒤 을미사변으로 민비가 살해당하자 의병을 일으켰었고 의병을 해산한 후 평리원장(지금의 대법원장 격)에 임명되지만 일제의 침탈이 노골화되자 다시 의병을 조직했다.

1907년 12월 경기도 양주에서 조직된 전국적인 의병 조직 13도 창의군의 군사장을 맡은 것이 바로 그였다. 해산당한 대한 제국의 군인 3,000여명을 포함에 1만 여명에 이르는 연합부대는 총대장에 이인영, 군사장에 허위 등을 중심으로 서울 진공작전을 계획했다.

1908년 서울의 각국 공관에 의병부대를 국제공법상의 전쟁단체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격문을 보내고 군사장 허위가 이끄는 3백 명의 선발대가 동대문 밖 30리까지 진격해 일본군과 혈전을 벌였으나 후속부대의 지원이 없어 퇴각하고 말았다. 이때 부친의 부음(訃音)을 받은 총대장 이인영은 지휘권을 군사장이었던 그에게 맡기고 귀향해버렸다.

최신무기로 무장한 일본군에게 무너진 연합부대는 임진강을 넘어 패퇴하고 만다. 이완용은 그에게 관찰사 자리를 제안하며 회유했지만 계속해서 의병규합에 매진하던 가운데 1908년 6월 11일 일본군에게 체포당하고 만다. 당시 일본군 헌병사령관이던 아카시가 직접 심문에 나섰는데 그의 기개에 놀려 후에 사형을 면하게 해달라고 통감 이토 히로부미에게 청했다고 전해진다. 그러나 이토는 거절했고 그 역시 1년 뒤 하얼빈에서 불귀의 객이 되었다.

결국 그는 1908년 10월 21일 형장에 서게 되었다. 사형 집행에 앞서 일본 승려가 독경하려 하자 “충의의 귀신은 스스로 마땅히 하늘로 올라 갈 것이요, 혹 지옥에 떨어진다 하더라도 어찌 너희들의 도움을 받아서 복을 얻으랴” 라고 일갈하며 이를 물리쳤다. 또 검사가 그에게 사후 시신을 거둘 이가 있느냐고 묻자, “죽은 뒤의 염시(斂屍)를 어찌 과념하겠느냐. 옥중에서 썩어도 무방하니 속히 형을 집행하라”고 답했다고 한다.

115년 전 오늘 경성감옥 교수대에 “차마 왜적과 함께 살 수 없어 나섰다”고 외친 선비 왕산 허위가 형장의 이슬이 되었다.